東大新聞
發行人 徐 燉 珏
編輯人 韓 相 赫
主幹 宋 赫 均
編輯部長 金 衛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国大学校内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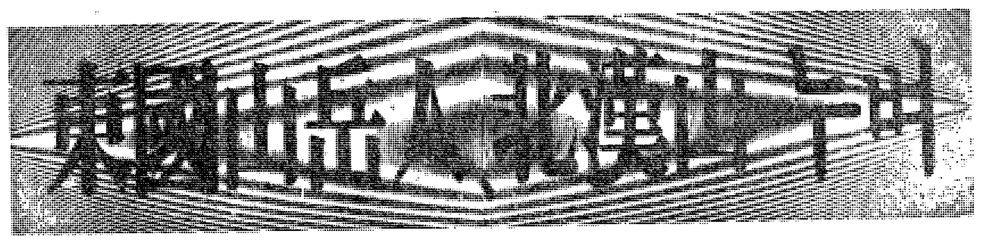
今週一言

有物先天地,
無相元寂요.
能爲萬象主,
遂四時不調.

천지보다 먼저
있으니
적적하고 요
적하여 형상이
없고 능히 일만
만물을 주장이
되어 사이에
춘추가 바뀌지
않는다.

<訟偈宗禪>

높다! 힘차다! 東國!



例年보다 優秀한 山行

最優秀賞에 附高등 30個팀 施賞

第4回 東國人 登山大會盛了

東国山岳会가 주관하는 제4회 東国人登山大会가 지난 22일(日) 북한산 도천사~진관사코스에서거행됐다. 올다 힘찬 발, 원각문을들어서며 관계인사 5백50여명이 참가하여 저마다 山行을 시작했다.

이날 도선사 대웅전 앞뜰을 출발, 용알문→태고사 터→현각문→진관사에 이르는 코스에서 거행된 동산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한 한자리에 모여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다.

오전 10時 도선사 대웅전 앞에 집합, 삼귀의례를 마친 일행은 총62개팀선수및 관계인사 5백50여명이 참가하여 저마다 山行을 시작했다.

이날 산행은 4月의 푸른 하늘아래 기름고 썩싹한 東国의 산과 들을 지나게 되어 참가자 일동은 모두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한편 徐総長은 이날 『등반대회의 목적이 동국인의 상호협조와 친목에 있음을 명심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유종의美를 거두어 달라』는 치사를 했다.

각선수들은 李敏鳳심판위원장의 대회진행상 유의사항을 듣고, 힘차게 파가제창을 한후 1팀당책정팀을 선두로 각팀 30초간격으로 도선사를 출발했다.

오전 山行코스인 용암문을거쳐 太古寺터에 도착하자 각팀에대한 구급법처소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점심을 위해 푹 필요한팀은 휴식을 취했다.

太古寺터에서의 점심시사도 있었는데 점심을 마치고 각팀은 태고사터를 출발, 원각문을들어서며 관계인사로 합했다. 목적지인 진관사로 향했다.

오후4시경 한명의낙오도 없이 전원진관사에 집결, 각팀의 점심준비점검을 하는등 종합체점을 마친후 진관사 뒷산에서 싱어롱팀, 팀대항 장기자랑도 가졌다.

폐회식에서는 李敏鳳심판위원장의 선수들의 장비점검과 산상퍼즐의 결과, 산행팀도상 종합감점이 있었다.

시상에 이은 崔総長의 폐회선언과 단체선창을 끝으로 맘을 녹인 이날대회의 시상에서는 그동안 3회계속 최우수상을 차지한 회심산악회 수상을양보, 차점팀인 東大附高에 영예가 돌아갔다.

大韓化學會 31回研會

27·28兩日、本校 中講堂등서

대한 화학회 제31회 연차 본교 중앙동과 G전동 講演이 있게된다.

이번 연회에서는 전국각대학 화학과및 화학관계자들이참석, 특별강연및 연구발표를 갖게되는데 본교에서는 申鉉昭(高分子)교수와 尹柱徹(食工) 교수가 연구발표를 갖는다.

대회첫날인27日 오후1시에는본교사범대 李日珠교수가 「유기수소화합물의 첨가반응」이란의주제로 特別講演이 있으며 10시45분부터 申鉉昭교수 尹柱徹교수의 주제발표가 있게된다.

兵事行政特講

25日 2時 中講堂서

이날 강연회에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제반 병사행정상의 문제점, 의문점에 총망라, 가질 예정이다.

교련단에서는 이날 강연참석자에 限해 금주의 일반 군사교육사간의 출석을 더해한다고 말했다.

中間試驗確定

1·2·3學年만 1 30日부터 週日間

教練、體育은 없어

學期 中間試驗日程을 오는 30일(月)부터 5월5日(土)까지로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 1·2학년은 英語과목만 共同출제되고 그외과목은 各別출제키로 결정되었는데 教練과 體育은 이번 中間考査日程에서 除外함에 따라 결석계로 2學年 英語과목 2, 3學年生을 專攻과목에 한해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補강의 시간에 시험을 부과키로 되었으며 金学年 教練및 体育은 이번 中間考査日程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험과목으로 결정된 과목은 国語, 英語(1), 哲学, 仏教学, 社会学概論, 동양사, 実験, 実技등은 제외된다.

한편 4학년생은 시험중에 졸업여행을 하도록되어 있다.

籠球野球부진

大統領배쟁탈 전국대학야구대회에 출전한 本校야구부는 22일 新設팀인 仁川商業팀에 3대5로 석패했다.

이대회는 토너멘트로 거행되는데 本校팀은 24일延大와 패자전을 갖는다.

한편 春季大学농구 연맹전에 출전한 농구부는 23일 건대체육관에서 거행된 경희대와의 첫대전에서 96대85로 敗했다.

水野弘元博士離韓

21日、2週間 集中講義끝내고

본교 姉妹校인 日本駒沢大와 相互敎授 교환계획에 따라 지난 30일 來校했던 仏教学長 水野弘元博士가본교 대학원및 학부생에 2주간의 강의를 마치고 28일 이른아침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水野博士는 지난10년간 인도철학계에 권위있는 학자로 인도철학의 보편성을 제기하면서 인도철학의 보편성을 제기하였던 『人間的이기 때문에 인도적인것도 아니고 欧羅巴的인 것도 아니다』라고 한 말은 철학에 있어서의 多元性을 말하는것임수도 있지만 어느 학문보다 보편성을 主張하는 哲学이 史学界의 地方史的인 명칭을 띠고있다는 사실은 哲学이 지니는 보편성의 한계내지는 哲学의 文化的制限性을 노정하는 일면이라고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印度哲学」이라는 명칭이 哲学史에 기준을 둔 分類로 이해되고있지만 이러한 명칭의 발생은 주로 지난世紀의 植民主義的歷史·政治的인 현실에서 연원되었기 때문에오늘에와서는 이러한 西欧志向的 명칭속에 내포되는 伝統的思惟의 개념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편화할수 있는가가 인도철학계를 지배하는성격이 되고있다. 그것은 인도철학만에 한정된고있는 문제는 아니고反省의 学으로서 哲学一般이 항상근원적으로 문제시해야하는 점이기도하다.

S·라다크리슈난이 서양철학과 차별시키며 인도철학의 보편성을 제기하였던 『人間的이기 때문에 인도적인것도 아니고 欧羅巴的인 것도 아니다』라고 한 말은 인도철학의 보편성을 지난世紀의 植民主義的歷史·政治的인 현실에서 연원되었기 때문에오늘에와서는 이러한 西欧志向的 명칭속에 내포되는 伝統的思惟의 개념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편화할수 있는가가 인도철학계를 지배하는성격이 되고있다. 그것은 인도철학만에 한정된고있는 문제는 아니고反省의 学으로서 哲学一般이 항상근원적으로 문제시해야하는 점이기도하다.

S·라다크리슈난이 서양철학과 차별시키며 인도철학의 보편성을 제기하였던 『人間的이기 때문에 인도적인것도 아니고 欧羅巴的인 것도 아니다』라고 한 말은 인도철학의 보편성을 지난世紀의 植民主義的歷史·政治的인 현실에서 연원되었기 때문에오늘에와서는 이러한 西欧志向的 명칭속에 내포되는 伝統的思惟의 개념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편화할수 있는가가 인도철학계를 지배하는성격이 되고있다. 그것은 인도철학만에 한정된고있는 문제는 아니고反省의 学으로서 哲学一般이 항상근원적으로 문제시해야하는 점이기도하다.

姉妹結緣이후 敎授교환, 활발한 교류를 법이오랜 日本 駒沢大学과 姉妹結緣의 우의를 더욱 굳게 다지기 위해 지난 22일 駒沢大学 図書資料교환등 協議次 来校한 駒沢大学 大谷 孝一 総長一行의 来校로 오는5월7일 전후 하게되었다.

昨年 10월12일 駒沢大学을 本校개교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日本을 방문한 徐燉珏総長에 이어 특히 부林総長은 8日개교기념식후 本校에서 수여하는 名誉哲学博士学位를 받게된다. 부林総長은 5월7일12時 특별강연도 가질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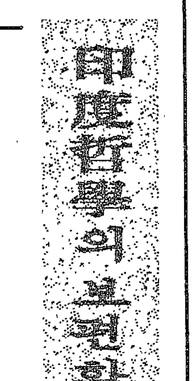
金浦空港도착 櫻井秀雄(사무라이슈유) 敎務処長, 金貞淑氏(拓植大講師) 등을 대동한다.

부林総長의 来校日程을 보면 8日 名誉学位를 받은 다음 오후2시 本校中講堂에서 特別講演을 갖고 9日부터는 仏国寺, 海印寺등 유명古刹을 観光하게되며 한부자레 相互交換 계획에 관해 徐燉珏総長과의 견을 나눌 계획으로있다.

傳統的思惟·概念 그 보수을

<仏敎大印哲学講師> 李珉容

印度哲學의 보편성



学界의 焦点

도철학이 과거에 쳐었던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일본학계의 동향이 우리에게큰 자극제가 되고 있는 현재, 저들이 극복한 불교학·인도철학의 한계는 우리에게 시급한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우선적으로 불교학계에서 제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한국에서 인도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들의 学的한신이 항상 불교와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도철학은 불교학과의연관속에서 그 발단을 갖는만큼 초기 불교학파의 보적 수용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점이 현실이다.

그것은 前代의 仏敎学이지닌 편협성을 극복시켜주는 보조적인 입장에서 인도철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였다. 인도 고전어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인도철학은 고전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철학에 대한 전반적이해가 불교학연구에 막중한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서 인도철학을 이 방에서 学的한신을 곧 기시작했다. 그러나 수용과정에서 인식되었던 인도철학의 보조적정격은 오늘에 와서도 불교학의 従属的인 해석한 입장을 추하고있다. 그러므로 인도철학 자신은 물론 불교학자체 마저도, 현대적 학문으로정립되지 못했음을 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일본 불교학과인 이러한 이유로 인도철학은 규전어

課外生活과 人間關係

社說

生舍의 歡喜와 所望과 아름다움이 싱싱하게 치솟는 季節이다。週末이면 古宮이 붐비고 서울近郊의 名勝地마다 人波로 뒤덮힌다。大学街의 젊은 大学生들에게도 4월과 5월은 가슴을 들뜨게한다。祝祭가열리고 野遊會라는이름의 그룹活動과 접촉이 그 어느때보다도 잦아지는 계절이다。

밖으로 自己의 젊음을 拡散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이럼 季節일수록 問題는 많다。바람직한 人間関係와 아울러 秩序意識이 요구되는 美德이 그만큼 强調되어야할 季節인 까닭이다。

물론 人間関係나 秩序意識의 문제에 季節의 속성으로봐서 요지음이 특히 留意를 필요로한다는 것이다。

大学生活은 「學業의 본말있는 準備하는 課程이다。따라서 大学生活의 成敗는 自己를 效率的으로 活用하는 方法을 터득하는 데서 결정된다。

우리에겐 時間嚴守、또는 「時間만 超越한 悠悠自適을 美德으로 여겨왔다。그러나 急変하는 産業化社會에 있어서는、그런 悠長한 農業社會의 타성은 時間의 浪費만이 아니라 목숨의 浪費를 의미하는것이다。

時間은 곧 삶이다。大学生活은 4年이라는 限定된 期間이다。그 4年이라는 期間은、지금도 순간마다 죽어가고있다。죽어가고 있는 시간을 내적정장에 받칠 때만이 그것은살아있는 시간의 의미가된다。週間과 週末의 불필요한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한다면、그것은 낭비일수밖에없다。

限定된 시간앞에서 엄숙한 투려움을 느끼며 조바심치는 生活態度야말로 大学生다운 자세이다。

요컨데 時間을 效率的이며 충실한 주말의 즐거움의 의미가있다。

둘째、学生들의 課外生活에 있어서 人間関係를 보다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겠다。学生들은 강의시간보다 課外生活에서 自然스러운 学友同志의 만남이 이루어진다。大学生의 課外生活은 그것이 人格的 기틀이 잡힌 成年의 것이다。知的 水準이 높은 階層이기 때문에 더욱 注目의 対象이된다。우리는 흔히 学友間의 만남이 寒門의 方向이 같은 同行者라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고 본다。人間의 成長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横的인 社会的 接触만이 아니라 同年輩同의 縦的인 만남에 있어서는 그 存在의 意義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이 横的인 縦的인 人間関係의 正常을 法으로 調節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이다。사실 人間社会의 적고큰 복잡한 現象을 법률적 規律에 依存되기보다는、人間本来의 속성인 道義와 良心에 달린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伝統的인 道義精神이 無力化한 過渡期를 살고있기는 하다。그러나 人間과 人間사이에는 相互尊重의 美德으로 살기로 되어있다。社会生活은 人間의 만남의 관계이며 그것은 主体와 主体의 관계이다。이러한 人間과 人間사이의 만남에 있어서 自己의 主体性이 짓밟히거나 無視되고도 격분하지 않는 경우란 거의 없다。人間사회의 관계를 同等하다고한 仏敎의 智慧는 그런것에서 民主主義의 原理와 一致하는것이다。따라서 学友同의 만남에 있어서、그것이 아무리 無関하고 開放的인 경우일지라도、相互尊重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일은 없어야하겠다。한마디로 말하면 高校同窓의 가리지 않은것과 같다。

셋째、学生들의 課外生活에 있어서 一切의 과별적인 要素가、배제되어야하겠다。高校同窓의 가리지 않은것과 같이 과별적인 行態로 表現된다면、그것은 不和의 要因이된다。

大学時代의 幅넓어야할 人間関係를 스스로 제약하는 과별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마땅하겠다。

学友同에는 親和가 유지되면서도 理知的으로는 相互批評하는 関係이다。서로 작곡하고 격려하는 緊張関係는 전체적인 人格도야나 知識·技術습득을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学友同에 地縁과 学緣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総和를 깨뜨리고、훌륭한 交友関係를 짓밟는 일이 있다면、그것은 자기스스로의 손실일 수 밖에 없다。

英国「옥스포드」나「케브리지」敎育의 神士形成敎育이념은 周知하는바다。成年의 本質的인 의미는 그 年齡에 있지않고 一挙一動에 나타나는 그 人格에 있다。

大学의 知的風土造成은 知的総求의 출처를 위한 努力과 함께 成年다운 秩序와 行動을 요구하는것을 알아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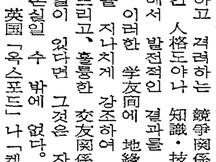
洪 又
〈經商大 經済学科 교수〉

大学閑話

敎育不在

敎育을 縦的인 것과 横的인것으로 나누어서 보고싶다。오늘의 学校敎育은 全部가 技術敎育이다。政治人도 行政家도 法律家도 経済人도 敎育者도 宗敎人도 芸術家도 学者도 医師도 技術者가 有名의 成功을 거두자면 技術만을 가지고가는 안된다。技術을 敎育이 되고 敎育이 있어야한다。

그것을 나는 라고부르고싶다。나는 生活의 四要素를 主張한다。勤勉·倹素·正直·純潔이다。生活敎育은 다시 道德敎育으로 떠받쳐져야하고 道德敎育은 다시 宗敎敎育으로 떠받쳐져야한다。이를 나는 敎育의 縦的体系라고 부르고싶다。이에 対해서 胎敎에서 出発해서 家庭敎育、이것을 敎育의 横的体系라고 부르고싶다。敎育은 이 横·縦으로 얽키어서 即 敎育의 날실과 올실이 한폭 어울려서 비로소 経緯를 敎育이 될수 있다。



周辺에는 나쁜環境의 材料로 充満되어있는것이오 늘의 実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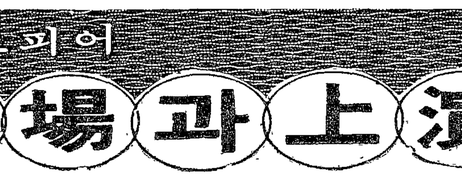
이같이 経緯바른 敎育의 推進力이되는 垂範과 環境에 期待를 걸수없다고하는데서 敎育不在의現実은 世界의 全般的인 現象이다。그렇다면 이러한 敎育不在가 몰고오는 結果는 또한 어떠한것일가。豫言者가 아니더라도 推理해서 넉넉히 말할수있을 것이다。物質文明의 堕落、이것이 바로 敎育不在에서오는 産物이 아닐것인가。

「셰익스피어」誕生 4百9週年을 맞아

○ 지난 23일은 셰익스피어탄생 409주년이 되는 날이다。
○ 올해도 韓国셰익스피어 協会는 그의 記念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그리고 우리 英文科 학생들은 그의 劇 Romeo and Juliet를 처음으로 原文 그대로 오는 5월12일에 公演하기 위해 지금 맹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그의 文学은 400년전의 英語인데다가 詩로 된 劇이요、当時의 劇場의 메카니즘이 지금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上演효과를 거두기에는 극복되어야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그러나 우리의 劇은 人類文化에 前無後無한 共同遺産이기도 하기 때문에 英国에서는 지금도 가장 많이 公演되고 있고 다른 外国에서도 번역극으로써 상장 많이 그리고 人氣있는 公演物이다。그러나 그의 극의 上演을 제대로 이해하려며는 당시의 劇場条件이 이해되어야할것 같기에 本稿에서는 그 점을 간단히 더듬어 보고 다음 기회에는 내에 그의 誕生地 스트랫트퍼드 어폰 에이본에 있는 그의「紀念劇場」에서 観賞할 멋들어진 공연에 더해서 논할 작이다。

김 재 남
〈文理大 英文学科 敎授〉

셰익스피어 劇場과上演



▲사진·「地球劇場」模型

觀劇은 臺詞청취를 重視 裝置、효과등 대사로 表現

셰익스피어 劇場과 上演

셰익스피어劇이 상연되었던 「地球劇場」의 경우 내부면적이 百坪안팎의 小劇場으로、이곳에서 三千名이상의 관객이 맞나다。여기에다 三층으로된 桟座席도 있기는 했다。

무대는 관람석의 거의 한복판까지 돌출해있어、관객들은 무대를 三면에서 에워싸고 관람할 수 있었다。최근의 露天円形野外劇場의 경우도 劇은 원래 종합적인 예술이다。

各 써클 認可된 73년도 現況과 實態

써클運營確保가 難題
써클登錄數 每年 증가추세

새학期 初만 되면 교정 도처에 나붙는 各써클 회원모집광고를 보고 누구나 한번쯤은 入會가입에 대한 강렬한 충동을 가져보게 된다。 大学社会에 첫발을 디딘 新入生들에겐 더더욱 가입의사를 부채질 할것은 물론이려니와 在学生중에서도 써클가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学生들을 우린는 종종 보아오고 있다。

이들 써클들이 내거는 「케치·프레이즈」는 대개 다양하지만 뚜렷히 내세우는 목적을 보면 大学人의 자주적인 協同을 바탕으로 人和및 仁人能力을 啓発한다는 폭 고루적인 內容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純粋学術 써클을 보면 会員 全員이 同一한 목표를 向해 노력을 경주하는 경우 相互 知識交換등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적절한 「인포메이션」을 会員 모두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奉仕단체및 취미단체는 작은 의미로는 会員간의 우의를 돈독히할 친목도모및 써클활동으로 얻게되는 참여의식의 증진으로 大学社会 더나아가 社会에서의 지도자적인 자질향상이 있겠고, 큰 의미로는 学生処의 조치는 앞으로 大学人의 앙식에 위배되는 써클활동을 들수 있겠다。

学術써클 学術써클 제출은 各 써클이 중례 그들이 내건 사업계획을 용두사미격으로 처리한다거나 일부 써클들의 年中행사가 한두번의 야유회로 그치고 마는 경향이었어 적해진 조처라고 볼수있다。

이번 써클등록認可로 밝혀진 써클들의 実態를 보면 대부분이 学生会館内에 각써클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서규가입된 한두써클은 추후 学生処에서 마련할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25개 각써클들은 学生処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따라 적정선의 활동비를 써클보조비에서 지급받게되며 그의의 써클운영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게된다。

써클활동 써클활동은 각써클 실이 배정되면 각써클회의를 마련하고 써클의 성격과 활동목표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워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써클활동은 학생처의 지도교수 및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써클이 학생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써클실이 배정된다。

써클의 활동내용이 없는데이 같은 활동은 앞으로 써클실 배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써클의 실태 써클의 실태를 보면 学生会에 등록된 써클수가 4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써클활동을 하는 써클은 10여개미만인 소규모가 대부분이다。

써클의 수입 써클의 수입은 회원회비 회원수입이 대부분이며 특별한 수입은 없다。

써클의 지출 써클의 지출은 회원들의 회비및 学生会에서 보조되는 써클활동비 그리고 특별한 수입이 있을때 이다。

써클의 지도교수 써클의 지도교수는 거의 전임교수들이 맡고있다。

써클의 목적 써클의 목적은 각양각색이다。

써클의 활동 써클의 활동은 노력하는 써클과 그렇지 못한 써클로 양분되고 있다。

써클의 문제점 써클의 문제점은 学生会에서 써클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써클의 요구 써클의 요구는 써클실 확보와 써클활동비 증액이다。

써클의 의견 써클의 의견은 써클실을 확보하여 써클활동을 활발히 하고 써클활동비를 증액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써클의 실태를 보면 써클을 운영하기위해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상당수 있는것을 쉽게 느낄수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회원의 참여의식 부족이 결국 써클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다。

써클의 재정 써클의 재정은 회원회비 학생처 보조금 그리고 특별한 수입이 있을때 이다。

써클의 지도교수 써클의 지도교수는 거의 전임교수들이 맡고있다。

써클의 목적 써클의 목적은 각양각색이다。

써클의 활동 써클의 활동은 노력하는 써클과 그렇지 못한 써클로 양분되고 있다。

써클의 문제점 써클의 문제점은 学生会에서 써클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써클의 요구 써클의 요구는 써클실 확보와 써클활동비 증액이다。

써클의 의견 써클의 의견은 써클실을 확보하여 써클활동을 활발히 하고 써클활동비를 증액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써클의 실태를 보면 써클을 운영하기위해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상당수 있는것을 쉽게 느낄수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회원의 참여의식 부족이 결국 써클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다。

△認可된 73년도 各써클 ☆ 学生課제공

써클명	지도교수	目的	회장
셕림회	서경보	불교사상및활동	강동균(인철 4)
KUSA-D	이정식	교육、과학문화의연구	김길재(농경 3)
길	임규손	학술의이론과실제를 접토의연구	박제화(일 3)
ELF	형기주	교육인으로서의 지도자적인격을 도야	양재일(극정 3)
PTP	오국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공헌	홀정의권(정 3)
한국문제연구회	남도영	한국의 제반문제연구(논문작성및연구발표)	박행행주(경 3)
불교학생회	홍정식	보살정신으로 불교의 현대적체득이 있는 개발에 힘쓴다	이불교용(불교 3)
수중탐험부	윤주역	해양	김경태(전 3)
동굴탐험연구회	이해풍	새로운동굴탐험및 보존 동굴내부생활의학술적연구	한상(임 3)
동대사진클럽	이재창	사진을 통한 예술의 창작	나종술(건 2)
불교합창단	이형주	불교음악의 새 경지를 개척	임정수(전 3)
동국고전연구회	김정배	선조의 업적을 보존개발	김경자(전 2
젊은새이웃	신효선	학교운동의 지역사회 효율적활동	최봉원(식 3)
Pegasus	오석규	영문학도상호간의 학술적 연구와 토론	이근학(영 3)
KCC-D	허 위	경제적현실의 이론과 실습	황연경(경 2)
FODE	장원종	경제학연구	유경열(경 3)
CAP 연구회	차균택	공인회계사의배출과정 영자의 육성	황조연(경영 4)
법	한상범	사법시험준비	윤태만(법 4)
경영학연구회	한 현	경영학연구와 각종자격시험준비	한상현(경영 4)
회계학연구회	이용택	회계사및 3급국가공무원시험준비	송기원(무역 4)
정치학연구회	김인홍	정치학의 연구발전	조의환(정외 4)
무역학연구회	전창원	무역에관한 자격시험준비	백종훈(무역 4)
경찰행정학연구회	홍종혁	경찰행정학 연구	오영규(경행 4)
행정학연구회	최요환	3급행정시험준비	민중식(행 4)

○:지난 19일 東友塔 가꿈 高校同門会 집합장소 異色等제에는 학생들을들을 回「東国人登山大会」에참 행했는데, 이날 기념식에는 徐燉珪 総長님을 비 롯하여 10여명모 함께 참석, 분향한 후 10여년전 独裁 에 항거하다 쓰러져간 학생들의 偉業 을되새겼다。

그러나 이 기념식에 서 故학우 崔仁均군의 부친 崔泳泰씨가 나와 『東友塔』

佛教藝術과 韓國美術

韓國美術二千年展을 보고

佛教=韓國美術의 主流

본교 소장 青華白磁는 代表作

<金銅阿勒勒菩薩半跏思惟像・6紀世, 新羅>

2千年 前의 祖上과 現代를 사는 후손들이 함께 호흡하고있다。그것들을 거미스레하고 구수한맛을 풍긴다。화려하지도、반짝 거리지도않고 단지青銅빛으로 변한 오랜 歷史를 말해주기만한다。단지 흰옷(白衣)을 사랑한 祖上들의 체취가 풍기는것 같다。

國立博物館에서는 지금 祖上들의 영이담긴 文化財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

「韓國美術 2千年展」。우리 先祖들이남긴 美術品들이 지니는 価値와 그멋이 새로이 이해된다。

이번 展示에는 舍사찰、国・私立大学博物館、仏人소장품및 국보급의 우리나라 文化財 総5백점의代表的 美術品이 한자리에 보여있다。진열품 종목을 時代別로 区分하여 三国時代 以来 高麗・李朝에결처있고 部分別로는 繪畵가93점、仏教彫刻75점、新羅土器와 高麗青磁、李朝白磁등의 도자기類가275점 금속 工芸品이 38점등이다。모두 그時代를 대변하는듯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歷史上 祖上들이 남긴 文化財는 많지만 여기 한자리에 모인것들은 모두 피와 뼈이 엮힌 조상들의 美的 価値観과 芸術的 生活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生命이 없는 物体가 아니다。옛사람들이 使用하다 버린 道具도 아니고 外国人들이 만들어 놓은것은 더욱 아니다。韓国民族의 연면한 사연이 맺힌、오늘을 만들었고 또 내일을 創造해내는 高貴한 遺産들이다。

그것들은 오늘을 숨쉬며 새로운 歷史와 文化芸術 創造에 기여해야하고 정직한 歷史의 증거물들이며 우리 文化의 어제와 오늘을 연결해주는 매체이기도하다。모든것이 찬란한 우리 文化를 재삼 인식시켜주고 있을뿐이다。

韓国美術史는 仏教美術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世紀경에 伝来된 仏教는 文化 芸術을 수반하여 우리의 文化発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仏教美術은 韓国美術의 主流를 이루었고 그것이 끼친 影響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있다。

이번에 出品된 仏像・石塔・銅鐘・舍利具등은 웅장했던 옛 영광을 말해주기만한다。단지 青磁의 은은한 色調와 그윽한 品格은 너무도 섬세하고 美를 유효적절히 利用할줄아는 祖上들의 재질에 감탄할뿐이다。특히 종에 새겨진 飛天像이나 蓮花紋등은 웅장했던 옛 영광을 불러일으킨다。

仏教美術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평화이지만지금까지 일반에게 별로 알려지지않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信仰의 対象으로만 여겨져왔을 뿐이다。한국仏像의 이런전통은 仏像과 더불어 많은결작을 남겼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취를 감추고만 지 몇몇 作品들만이 現存하고있다。여기에 소개된 「아미타 삼존상탱화」는 석방 국립박물관에 정「금동삼존보살입상」(6世紀)은 보살과 「대세지보살」을 左右에두고 蓮花座위에 정 舍利具등이 있다。이들을 북 峰근방에서 발견된것이다。

仏教 美術品들은 모든것이 信仰의 対象으로 만 처있고 장엄하고 경건한 열기이 아름다움과 함께 거룩하게만 보인다。

「王宮里」등지에서 塔内舍利荘厳」는 부처의 舍利를 모시기위한것인데 金蓮花座위에 정 蓮花座위에 봉안된것이다。

仏教 美術品들은 모든것이 信仰의 対象으로 만 들어진것이건만 그美術性과 創造性에는 감탄을 금할수가 없다。

그밖에 本校 博物館에서 出品한 「青華白磁松竹紋大壺」는 15世紀 조선王朝 初期백의것으로 높이49.3㎝나되는 보기드문 걸작품이다。国寶級 遺物인 이것은 松竹紋様이 뛰어난 作品으로 韓国 青華白磁의멋을 가장 잘 느낄수있는 代表作이다。또 代로 거슬러올라가 5・6世紀 新羅의 馬頭角盃土器나 李朝의 窯家 鶴林正이그린 山水図등은 우리나라美術史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할수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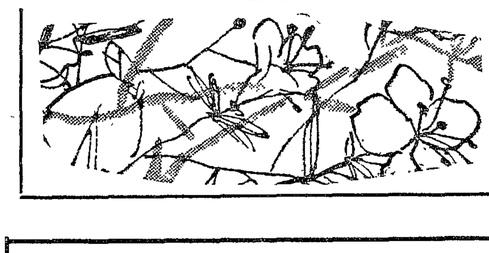
土器앞에 섰을때는 그옛날의 흙냄새가 나를 감싸주고 陶工들의 숨박하고 견하한자세가 아름다운 美術로 表現된듯 느껴진다。

하나 하나의 遺物에는 各各의 멋과 仏性이있지만 전체적으로볼때 形態美、表現美、그리고 우리의 古有한 線의美 単一民族으로서의 精神美、순박하기만한 単純美가 모두 섞여 하나의 民族文化를 형성하고있다。

진열장 앞에 섰을때에는 그속에 담긴 옛 美術人들과 마주서 함께 숨쉬는듯하며、마음은 그옛날로 돌아가 우리민족의 풍부한 人間性을 피부로 느끼기도한다。독특한 분위기와 깊은 감명을 느끼는 것은 아마 모든 정성을 다해 創造해낸 우리 祖들의 슈산이기 때문인가보다。

羅 宗 星

<仏教大美術科>



<科学美術学仏教大>

素描(II)

-그는 일어나려 했다-

<2>

金 元 錫

그래서 제가 아저씨 취미가 그거라구 해두 말루가네여요。

영철은키득거리며 상(床) 을밀쳤다。

그럼 내 취미가? 몰루 그는 우쭈한 기분이 되어졌다。

흰히 타인(他人) 들이웃어 오는 <고함을>/<나이는>/<취미는>/<술을> 열마나>/<좋아하는 배우는>/<무위의하품을>、그리나 모욕스럽운 물음가운데 또 하나가 해결되어진는 기분이 들었다。이 어차피 인간은 자기보다 타인이 더 나를 아는 것이기까。

부분적인 부분의 취미가 옷긴 했지만 오늘에 와서 이 아니 오늘이였던 적이 다시 올 거같지가않다고 생각하니、내일이 아닌